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에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신탁은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의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이하 "피투자펀드")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 펀드인 Candriam Equities L Oncology Impact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중대한 장기적 과제들 중 암과의 싸움이라는 특정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양학 분야(암 연구, 진단, 치료 등)의 글로벌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시장 성과로부터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할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선정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재무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투자대상 종목 선별을 수행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펀드와 함께 (또는 피투자펀드는) 수익 추구하고 아울러 특정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암과의 싸움에서 자원을 동원하는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고자 하며, Candriam의 ESG 리서치 및 분석을 기반으로 총 자산의 75% 이상을 지속가능한 투자자산에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투자(Sustainable Investment)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하는 경제적 활동에 대한 투자를 의미하되, 이러한 투자가 환경적 또는 사회적 목적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투자대상 기업들이 건전한 지배구조 관행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신탁을 통한 외국통화 표시의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로 인해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한 환헤지 전략은 수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4억 원

-Eastspring Investments - Global Oncology Fund 8억 원

펀드유형 주식-재간접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100% 이하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 편입비: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A-E : 2023년 08월 01일
- 클래스 C-E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F : 2023년 07월 17일
- 클래스 C-P2E : 2024년 09월 25일
- 클래스 C-PE : 2023년 07월 28일

벤치마크 MSCI World Health Care Index(KRW) 95% + KBP Call 5%

신탁업자 한국씨티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8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9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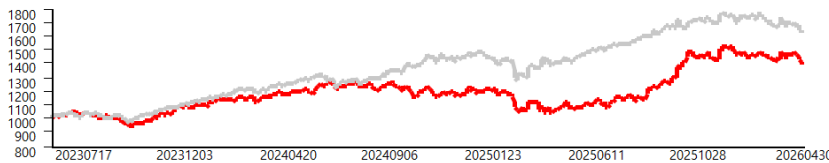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3.38%	-4.64%	11.09%	25.09%	20.52%	-	-	39.57%
클래스 A-E	-3.44%	-4.83%	10.68%	24.21%	18.86%	-	-	34.67%
클래스 C-E	-3.45%	-4.87%	10.58%	23.93%	18.29%	-	-	36.04%
클래스 C-F	-3.41%	-4.76%	10.83%	24.50%	19.35%	-	-	37.69%
클래스 C-P2E	-3.44%	-4.83%	10.72%	24.39%	-	-	-	12.85%
클래스 C-PE	-3.43%	-4.81%	10.72%	24.24%	18.84%	-	-	34.46%
벤치마크	-3.76%	-4.34%	-1.44%	18.43%	34.01%	-	-	62.66%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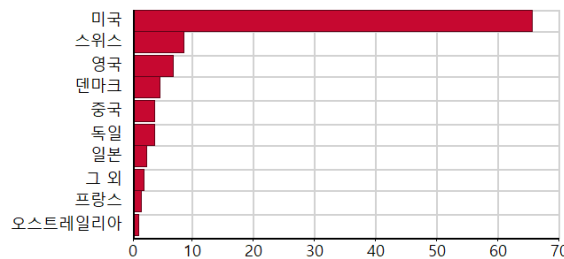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4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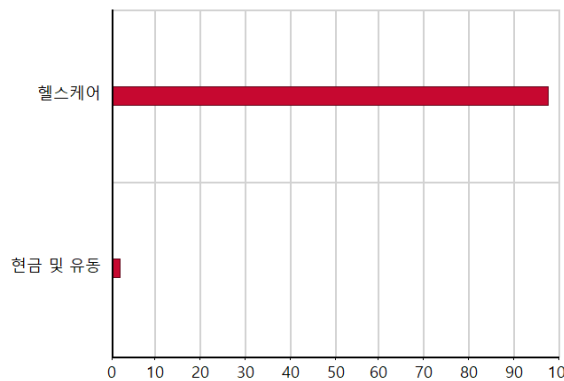
<국가별 비중>

순위	자산명	비중(%)
1	미국	65.8
2	스위스	8.4
3	영국	6.9
4	덴마크	4.6
5	중국	3.9
6	독일	3.5
7	일본	2.4
8	그 외	2.0
9	프랑스	1.6
10	오스트레일리아	0.9



<자산배분 현황>

순위	자산명	비중(%)
1	헬스케어	98.0
2	현금 및 유동	2.0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6년 04월말, 피투자펀드 기준)

종목명	비중(%)
Eli Lilly & Co	7.1
Astrazeneca Plc	4.9
Novartis Ag-Reg	4.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3.8
Merck & Co. Inc.	3.7
Pfizer Inc	3.2
Abbvie Inc	3.1
Mckesson Corp	3.0
Gilead Sciences Inc	2.9
Bristol-Myers Squibb Co	2.6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E : 총 연 0.79% (판매 0.325%)
- 클래스 C-E : 총 연 0.965% (판매 0.5%)
- 클래스 C-F : 총 연 0.495% (판매 0.03%)
- 클래스 C-P2E : 총 연 0.81% (판매 0.345%)
- 클래스 C-PE : 총 연 0.71% (판매 0.245%)

(공통사항)

운용 0.42%, 신탁 0.03%,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E, C-F, C-P2E, C-PE: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4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이란 휴전 협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고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반등하였으며 투자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업종으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술주가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하였으나, 헬스케어는 자금 이동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내에서는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관리의료 업종은 1분기 실적 호조와 낮은 의료손해율을 기반으로 반등한 반면, 의료기기와 병원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약 업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였으며, 특히 Lilly는 비만 치료 부문에서 지속적인 강세와 미국 외 시장에서의 성장,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성공적인 출시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글로벌 주식시장은 3월의 부진 이후 반등에 성공하며 투자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섹터 로테이션이 진행되면서 헬스케어의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은 더욱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과 구조적 수요에 기반한 성장 기대가 다시 부각되며 중장기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타일 로테이션이 이어질 수 있겠으나, 견고한 펀더멘털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성과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펀드에서는 중앙학 특화 자산과 헬스케어 섹터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반영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